

《退溪全書》所載 祝祭文 小考*

洪 瑀 欽

〈목 차〉

I. 緒 言

II. 退溪 祝祭文의 概況

III. 退溪 祝祭文의 文藝的인 特性

IV. 祝祭文을 통해 본 退溪의 對神認識

V. 結 言

I. 緒 言

祝文이나 祭文은 사람이 神을 向해 自身の 간곡절절한 意思나 情感을 전달하는 告由文이다. 때로는 祝祭者가 神에게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거나 神 그 자체의 위업을 讚揚慰撫하기도 하며, 혹은 祝祭者 자신의 所願成就를 祈願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때문에 祝祭文은 神明과 交感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文類이다. 그것이 비록 告由文의 性格을 지니면서도 深遠高雅한 思想感情을 주입함과 아울러 眞率華美한 修辭技巧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交感」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祝祭文은 단순한 記述文이 아닌 文藝文으로서의 特性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神農氏가 八神에게 告한「蜡」¹⁾를 비롯한 漢代 蔡邕의〈宗廟祝蝦辭〉· 唐玄宗의〈受禪告南郊文〉· 宋代 歐陽修的〈福康公主宅修築地基祭告太歲己

* 本 論文은 1991學年度 嶺南大學校學術研究費補助로 作成된 것임.

1) 劉翬, 《文心雕龍》〈祝盟第十〉:「昔伊耆始蜡,以祭八神. 其辭云, 水歸其壑, 昆蟲毋作, 草木歸其澤.」

下祝文>과 같은 祝文이나, 唐代 韓愈의 <祭十二郎文>·宋代 蘇軾의 <祭歐陽文忠公文>·晋代 陶潛의 <祭程氏妹文> 등의 祭文은 다 文藝文으로서의 典範이 될 수 있는 名文들이다. 祝祭文을 文學的인 입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의의와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李氏朝鮮 中期의 思想界와 學界를 領導해 온 退溪 李滉(1501~1570)은 그의 遺著 《退溪全書》(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研究院影印本)中 《退溪先生文集》卷之第四十五에서 祝祭文 46首를 남기고 있다. 이 46首의 祝祭文이 《退溪全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크지 않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退溪의 思想이나 文學的인 眞面目을 이해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자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退溪에 관한 연구는 주로 心性理氣를 토론한 書簡文이나 詩文에 치우쳐 있을 뿐 이 祝祭文에 대해서는 아무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筆者는 이 점에 착안하여 먼저 이 46首 祝祭文의 概況을 살펴 본 다음 거기에 나타난 文藝的 特性과 退溪의 對神認識을 探究해 보기로 하겠다.

II. 退溪 祝祭文의 概況

上記 46首의 退溪 祝祭文을 살펴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괄적인 情況을 간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

1. 祝文과 祭文의 不分混載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祝文과 祭文은 그 어느 것이나 다 神을 對象으로 한 告由文이다.

「按祭文者, 祭奠親友之辭也. 古之祭祀, 止於告饗而已, 中世以還, 兼識言行, 以寓哀傷之意, 蓋祝文之變也.」²⁾

에서 볼 수 있는 바 祭文은 祝文에서 變化된 文類이다. 그러므로 얼핏 생각하면 어느 것이 祝文인지 어느 것이 祭文인지 그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退溪先生文集》에서 祝文과 祭文을 區分登載하지 아니하고 混載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徐師曾의 說에 依하면 祝文과 祭文은 그 用例上 다음과 같은 區分 가능한 差異가 있었다.

1. 祝文:

「按祝文者，饗神之辭也。劉綬所謂祝史陳信，資乎文辭者是也。昔伊祈氏始蜡，以祭八神，……此祝文之祖也。厥後虞舜祠田，商湯告帝，周禮設太祝之職，掌六祝之辭，春秋以降，史辭寢繁，則祝文之來尚矣。考其大旨，實有六焉，一曰告，二曰修，三曰祈，四曰報，五曰辟，六曰謁，用以饗天地山川社稷宗廟五祀群神而總謂之祝文。」³⁾

이 내용을 다시 분석정리해 보면 몇 가지 條目으로 나뉘어진다.

(1) 祝文은 「祝史陳信」 즉 祝官이 祭禮를 主管하는 主祭者를 대신하여 對象神靈에게 그 祭禮를 舉行하게 된 動機나 目的을 告由하는 形式의 文類다.

(2) 祝文은 社稷·宗廟의 神 즉 人神에 대한 祭禮에는 물론이거니와 天地·山川·樹木의 神 즉 物神에 대한 祭禮에도 쓰여져 왔다.

(3) 祝文은 主祭者가 對象神靈에게 「告」·「報」함 즉 어떤 事實을 단순히 告由함에서 그칠 수도 있는 동시에 主祭者 自身の 所願成就를 祈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對象神을 逐辟하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었다.

「按祭文者，祭奠親友之辭也。古之祭祀，止於告饗而已，中世以還，兼讚言行，以寓哀傷之意，蓋祝文之變也。……劉綬云，祭奠之楷，宜恭且哀，若夫辭華，而靡實，消鬱而不宣，皆非工於此者也。」⁴⁾

2) 徐師曾, 《文體明辯》 卷之六十一. 〈祭文〉

3) 徐師曾, 《文體明辯》 卷之六十一. 〈祝文〉

4) 同上書.

를 祝文의 概念과 대비시켜 보면 그 要旨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祭文은「祭奠親友之辭」즉 祭禮를 主管하는 主祭者가 아닌 第三의 參祀者가 자신과 對象神靈間에 있어 온 어떤 특수한 事情을 전달하는 文類다.

(2) 祭文은 따라서 物神이 아닌 人神에 대한 祭禮에만 쓰여질 수 있었으며, 祭祀 가운데서도 忌祭가 아닌 小祥이나 大祥 등에 한해 쓰여질 수 있었다.

(3) 祭文은「兼讀言行, 以寓哀傷之意」즉 對象神의 生時 言行을 찬양하거나 그 죽음을 哀傷하는데서 그칠 뿐, 祭文을 쓴 사람 자신의 所願成就를 祈求하거나 對象神을 逐辟하는 性格의 내용을 담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기준으로 退溪의 祝祭文을 감상해 보면 총 46首 祝祭文中 〈風雲雷雨壇祈雨文〉에서부터 〈又焚黃文〉에 이르기까지의 29首는 祝文에 해당하며, 그 이하 〈白雲洞書院祭安文成公文〉에서부터 〈祭郭侯文〉에 이르기까지의 17首는 祭文에 해당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II. 退溪祝祭文의 名義

退溪는 29首의 祝文과 17首의 祭文을 남기고 있지만 실제 그 祝祭文을 주관한 사람의 名義는 각각 다르다. 그것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退溪 자신의 명의로 쓴 것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쓴 것 혹은 누구의 명의로 쓴 것인지 확실하게 분간하기 어려운 것 등 三類가 있다.

1. 祝文의 名義

(1) 退溪 自身の 名義로 쓰여진 것:〈風雨雷雨壇祈雨文〉·〈上岳山祈雨文〉 등 2首

(2) 他人의 名義로 쓰여진 것 : 〈慶州館舍失火遣近臣慰安集慶殿文〉, 〈宗廟祈雨祭文〉 7首, 〈慶福宮重新祭告文昭殿文〉 3首, 〈宣賜食物祭告家廟文〉·〈祭告高祖廟文〉·〈焚黃文〉 4首 等 19首.

(3) 名義가 不分明한 것 : 〈國內山川祈雨文〉·〈北方黑龍祈雨文〉·〈零祀玄冥氏祈雪文〉·〈親祭先農先配位后稷氏文〉·〈熊津溟所祈晴文〉 等 10首.

2. 祭文의 名義

(1) 退溪 自身의 名義로 쓰여진 것 : 〈賜祭知中樞府事李龜齡文〉·〈祭姪將仕郎宓文〉·〈祭南參議景林文〉·〈祭洪應吉文〉·〈祭禮安訓導琴公梓文〉·〈祭壘岩李知事先生賢輔文〉·〈祭趙松岡文〉·〈祭黃星州仲舉文〉 2首, 〈祭權同知應掟文〉·〈祭亡友秋巒鄭君之雲文〉·〈祭權參判應昌文〉 等 12首.

(2) 他人의 名義로 쓰여진 것 : 〈祭郭候文〉 1首

(3) 名義가 不分明한 것 : 〈白雲洞書院祭安文成公文〉·〈祭安文敬公文〉·〈臨臯書院成祭鄭文忠公文〉·〈臨臯書院成祭鄭文忠公文〉·〈易東書院成祭禹祭洒文〉 等 4首

우리는 이 退溪祝祭文의 名義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退溪祝祭文은 그 상당부분이 退溪 自身의 名義로 쓰여지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지난 날의 祝祭文 가운데는 남의 손을 빌어서 쓴 「借作」과 남을 대신해서 지어 준 「代作」이 많았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祝祭文이 朝鮮時代 사람들에게 얼마나 重要하고 切實한 生活要件이었던가를 아울러 짐작할 수가 있다.

3. 退溪祝祭文의 典範性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韓國歷史上 李氏朝鮮 五百年間을 주도해 온 理念은 宋代에 體系化되었던 新儒學 즉 性理學 思想이었다. 이 新儒學 思想은 高麗末 安珦, 白頤正·權 溥·李齊賢 等を 기치면서 受容되었고, 李 穀·李

穉父子를 통해 한층 더 깊이 이해되었으며, 李穉의 門人 鄭夢周·鄭道傳·權近·李崇仁·吉再 등에 이르러 비로소 現實生活에 應用되기 시작했다. 그중 鄭夢周는 「道也者, 須臾不可離也, 可離, 非道也,」《中庸》의 精神을 高麗守護의 愛國忠節로 승화시켰음은 물론 朱熹의 《家禮》를 처음 家庭儀禮準則으로 採擇했으며, 鄭道傳은 《易》의 生生不滅說에 의거하여 佛敎의 輪廻·因緣說을 배척함으로써 抑佛崇儒의 朝鮮建國理念을 確立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한편 吉再를 淵源으로 삼은 士林派가 形成되어 金叔滋, 金宗直父子를 필두로 한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等 新儒學思想을 기본이념으로 한 文人, 學者, 政治人이 부단히 배출됨으로써 韓國新儒學은 實로 그 기초가 확립된 셈이었다. 退溪는 바로 이러한 新儒學을 淵源으로 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등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비록 일정한 師承관계를 가진 바는 없으나, 「古人不云乎? 不敢自信而信其師, 朱子吾所師也, 亦天下古今之師也,」⁵⁾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朱熹를 私淑하여 心性理氣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체계화함으로써 韓國性理學을 集大成했던 분이었다.

「心爲萬事之本, 性是萬善之原, 故先儒論學必以收放心養德性爲最初下手處, 乃所以成就本原之地, 以爲凝道廣業之基, 而其下功之要, 何俟於他求哉, 亦曰主一無適也, 曰戒慎恐懼也,」⁶⁾

와 같이 退溪는 「收放心, 養德性」으로 自身의 本原(人格)을 陶冶하고 學業을 확충해 나갔으며,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主一無適」, 「戒慎恐懼」한 操行으로 一貫했기 때문에 드디어 萬人의 추앙을 받는 스승이 되었다.

「退閒以來, 年益高, 德益深, 玩心益高明, 行道益親切, 自得者日益深, 從遊者日益衆, 然後人始知東方有真儒出, 識與不識, 皆稱先生云, 先生處鄉黨, 恂恂不異於人, 而鄉人之善者悅其道, 不善者畏其義, 凡有所爲, 必曰先生以爲何如, 有所疑, 無不稟而決之, 敬之如神明, 信之如蒼龜,」⁷⁾

5) 《退溪先生文集》卷十六, 〈答奇明彦〉

6) 同上書.

7) 《言行錄》卷一, 〈言行述述〉

는 그 적절한 例라 할 수 있다. 退溪는 그를 아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神明」과 같은 「先生」으로 존경하면서 先生의 학문과 言行을 그들 스스로의 典範으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退溪가 하는 일이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고, 退溪가 하지 아니하는 일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다. 退溪가 古拙枯淡한 書體를 完成하자 너드 나도 그것을 모방하여 이른바 「退體」를 유행시켰던 일은 그 중의 한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退溪의 학문적인 입장과 人格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退溪의 祝祭文이 당시 儒林이나 一般大衆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退溪가 다른 사람 名義의 祝祭文을 代作해 주기까지 했으니 退溪를 아는 사람치고 그 누가 감히 祝祭文 없는 祭禮를 거행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借作을 해서라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祝祭文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退溪가 의연히 風雲雷雨壇이나 山川樹木 및 國內의 名山大川을 찾아가 祈雨·祈晴祭를 올렸으니 그 누구도 마음 놓고 山川樹木 等の 物神을 향해 제사를 올리고 所願成就文을 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退溪의 祝祭文은 이러한 典範性으로 인해서 그 누구의 祝祭文보다 歷史적인 意義가 크며 또 깊이 研究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Ⅲ. 退溪 祝祭文의 文藝的인 特性

「動天地感鬼神莫近於詩」《詩經》〈序〉에 있어서 天地와 鬼神을 感動시킬 수 있는 詩는 詩로서 具備해야 할 藝術的인 表現技巧을 充足한 詩라 할 수 있다.

그것은 祝祭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祝祭文은 原來 神을 感動시키는 데 그 一次的인 目的이 있는 文類이지만 祝祭文이라 해서 다 鬼神을 感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詩와 같이 動天地感鬼神할 수 있는 表現

技巧의 要件을 具備했을 때 비로소 神을 感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本章에서는 退溪祝祭文이 갖추고 있는 表現技巧의 藝術性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體裁의 創新性

文章에 있어서 體裁는 그 文章의 內容을 담는 容器와 같은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체재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낡은 體裁를 그대로 襲用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이 새로운 體裁를 創出하여 運用하는 方法이 그것이다. 우리는 前者의 경우를 體裁의 모방이나 답습이라 하고 後者の 경우를 體裁의 創新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退溪의 祝祭文을 通覽하면 먼저 그 體裁의 創新性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長短의 不羈性

보통 祝文이라 하면 祝을 쓰는 一定한 形式 卽「祝式」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退溪가 쓴 祝文이나 祭文을 對하면 形式에 拘束을 받지 아니한 祝祭文을 썼음을 알 수 있다.

〈宗廟祈雨祭文〉7首는 各各 48字로, 〈景福宮重新祭告文昭殿文〉3首는 每首 65字로, 〈白雲洞書院祭安文成公文〉과 〈祭安文敬公文〉은 各 16字로, 〈祭姪將仕郎宓文〉은 1047字로 된 글이다. 이와 같이 어느 祝祭文의 경우도 이미 정해져 있는 字數의 形式에 구애를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祝祭文을 통해 告由하거나 祈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그 祝祭文을 드리고자 하는 對象神이 어떤 神이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文의 長短을 결정했을 뿐이다. 이른바 가는 데까지 가다가 그칠 데서 그친「隨物賦形」의 創意性을 十分發揮한 것이다.

이와 같이 退溪의 祝祭文은 우선 그 長短形式에 있어서 一字도 加減할

수 없는 率直하고 眞實한 표현기교의 特性을 지님으로 해서 動天地感鬼神 할 수 있는 輪廓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2) 構成의 典重直切

格式을 갖춘 文章은 大概「緒頭 → 本文 → 結尾」와 같은 3段階의 展開過程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退溪는 祝祭文을 지음에 있어서 이 構成에 대한 技法을 매우 신중적으로 活用하고 있다. 때로는 표준적인 3段階 構成의 格式을 준수하여 대단히 婉曲하고 典重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緒頭」를 생략하거나 緒頭와 結尾 부분 모두를 생략하여 이른바 去頭絶尾의 긴박하고 직절한 感情流露의 효과를 더해 주기도 한다.

「絳嘉靖二十七年，歲次戊申四月丙午朔十九日甲子，通訓大夫丹陽郡守李滉謹遺留鄉別監張世銓，以少牢之奠，祭于上岳山神曰〔緒頭〕

⇒ 業業維岳，峙于封域，含靈蕃祐，利及群物，頃歲荐饑，民命方急，時當麥秋，渴待其食，如何亢陽，爲害又極，擢擢來甦，其穗如焚，種者不苗，苗者不繁，口無粒食，西成望絕，哀我黎氓，舉將填壑，守上有罪，宜受其罰，民之無辜，籲呼斯棘，神靈孔昭，曷不惠澤，沛然甘澍，不俟移時，我民其蘇，神亦有依。〔本文〕

⇒ 滉，旣齋旣浴，臨事有故，不克躬訴，惟增恐懼，尙饗。」〈上岳山祈雨文〉

은 婉曲典重한 三段構成의 例文이며

「曉矛否德，謬當司牧，獲戾上下，仍歲荐厄，溝壑餘氓，旣勤田畝，胡爲恒暘，又丁厥咎，種之不苗，苗亦枯矣，萬口喁喁，莫相保矣，維神降監，豈不急矣，棠顯其發，膚寸而合，填填其作，霑霑其澤，及時膏之，民庶粒食，匪遑眇躬，實神攸托。」〈風雲雷雨壇祈雨文〉

「尊信斯道，闡教吾東，功在學校，百世攸宗。」〈白雲洞書院祭安文成公文〉

等은 「緒頭」와 「結尾」部分을 생략한 채 單刀直入의 本文部分을 擴大強調함으로써 緊迫直切한 느낌을 금치 못하게 하는 構成技法을 運用한 例다. 「動天地感鬼神을 念頭」에 둔 退溪의 능숙한 창작수완이라 할 수 있다.

2. 修辭의 效率性

「言之無文, 行之不遠」〈左傳〉의 「文」은 道를 전하는 文章에 있어서의 文飾 즉 修辭의 효율적인 기능을 설파한 名言이다. 退溪는 祝祭文을 씀에 있어서도 이 修辭의인 效率性을 매우 중요시했던 것 같다. 그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直敍의인 寫實性

中國人들은 일찍부터 人間의 感情을 표현하는 修辭法으로 「賦」·「比」·「興」의 妙理를 터득 활용해 왔다.

「賦」는 直敍法이며, 「比」는 譬喩法이며, 「興」은 象徵法에 해당한다. 詩는 이 三種修辭法中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祝祭文과 같은 實用文에 있어서는 「比」나 「興」을 常用하거나 過用해서는 안된다. 祝祭者의 意思가 神靈에게 암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退溪는 祝祭文을 씀에 있어서 가급적 「比」「興」法을 피하고 「賦」法을 활용하여 祝祭者의 意思가 굴곡 없이 신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種之不苗, 苗亦枯矣, 萬口吁吁, 莫相保矣.」〈風雲雷雨壇祈雨文〉

는 폭한에 시달린 농민들이 애타게 비를 기다리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이 묘사한 예이며,

「適丁我躬, 藥火暴作, 爰白于中, 延燒莫禦, 烈焰愈熾, 鬱攸屬天, 爆裂撼地, 震驚我先.」〈慶福宮災慰安宗廟文〉

은 慶福宮에 화재가 일어나 짓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 나감을 묘사한 광경이며,

「嗚乎哀哉, 吾兄侍不忍災汝於羈博之間, 既以汝骨, 間關跋涉於三千八百里之遠而來, 權厝於此矣.」〈祭姪將仕郎宓文〉

는 親姪 窓이 使行을 떠난 父親을 陪行했다가 中國에서 病死함에 서울까지 그 靈柩를 옮겨 온 참혹한 실황을 묘사한 장면이며,

「公旣高蹈, 我病沈嬰, 歸連性命, 得近巖局, 每蒙提誨, 常許挾擊, 春山簇錦, 秋潞羅腥, 對雨霞峯, 踏雪沙汀, 釣磯鷗狎, 野席人爭.」〈祭龔岩李知事先生賢輔文〉

은 관직을 사퇴하고 陶山에 머물면서 龔岩李賢輔와 함께 自然美를 玩賞하며 지내던 추억을 묘사한 장면이다. 字字句句 그 어느 하나 讀者의 심금을 감동시키지 아니함이 없는 修辭技法이다. 溫柔敦厚한 心眼으로 萬象을 觀照하고, 心手相應한 筆法으로 優雅高遠한 心境을 거침 없이 묘사한 퇴계였다.

(2) 完熟한 四言駢優

祝祭文은 主祭者나 參祀者가 반드시 神位를 향해 朗讀해야 하는 글이므로 상당부분이 詩나 音樂的인 性格과 엮여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祝祭文은 그 낭독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어지게 마련이다. 一般的으로 祝祭문에 四·四調等 一定한 字數의 駢偶技法을 이용한 원인은 아마 그런데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退溪의 祝祭문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은 역력히 나타나 있다.

「維神厚德, 持載萬物.
 含生爲道, 發育爲職.
 頃歲茲厄, 水旱作孽.
 民失其天, 陷于溝壑.」
 〈雩祀后土氏祈雪文〉

과 같은 短文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嗚乎哀哉,
 天有淑氣, 公稟其英.
 星有老壽, 公應其精.
 風流標致, 爽豁襟靈.

德以清立, 志以介貞,
 惟謙愈福, 惟約愈享,
 豹隱山霧, 鵬奮雲程,
 時值明夷, 驪嶺是攬,
 扶佑愷梯, 實賴神明,
 際會千一, 歷駁華清,
 芥拾青紫, 鼎至功名,
 雙親顧養, 亟求典城,
 事君以忠, 何必主庭,

 薄奠來設, 披腹叫呈,
 公其顧裁, 歆此一觥,
 嗚呼哀哉。」

〈祭龔岩李知事先生文〉

과 같은 長文에 있어서도 始終一貫 四・四調의 駢儷形式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히 四・四調의 駢儷로 된 것이 전체 46首 中 32首나 되며 〈祭告高祖廟文〉처럼 緒頭와 結尾部分을 제외한 本文을 四言駢儷로 쓴 祝祭文이 10首나 된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보면 退溪 祝祭文의 外形의 修辭技巧은 朗讀에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四言駢儷가 그 主流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3) 古文體와 辭賦體의 試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의 축제문은 그 대부분이 四言駢儷文으로 쓰여져 있으나 그 例外도 있다. 그는 46首의 축제문 가운데서 1首는 古文體로 그리고 1首는 辭賦體를 응용하여 작성했다.

前者는 父親의 使行길을 따라 갔다가 中國에서 夭折한 姪 宓의 영혼을 慰撫하기 위하여 쓴 〈祭姪將仕郎宓文〉이며, 後者는 第子 黃仲舉의 死亡을 哀悼하기 위하여 쓴 〈祭黃星州仲舉文〉이다. 이 두 首의 祭文을 平凡한 四言駢儷體로 쓰지 않고 굳이 古文體와 辭賦體를 응용하여 쓴 데는 「修辭技巧과 文章內容의 相關性」에 대한 退溪의 深刻精微한 配慮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祭姪將仕郎宓文〉은 夭折한 조카의 영혼을 慰撫하기 위하여 쓴 제문이기 때문에 차마 음악적인 言語技巧을 弄하는 駢儷文體의 修辭를 驅使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여기서 切痛한 心懷를 있는 그대로 婉曲眞率하게 표현할 수 있는 古文體를 선택했던 것이다. 〈祭黃星州仲舉文〉을 辭賦體로 쓴 원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퇴계의 文藝美的인 眼目에 대해서 感服하지 않을 수가 없다. 栗谷이 지적한 바 「由文入道」란 이런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IV. 祝祭文을 통해 본 退溪의 對神認識

退溪는 「子不語怪力亂神」《論語》의 敎訓을 受容했던 儒學者이며 人間과 宇宙萬物의 生成變化에 대해서 確固不動한 見解를 體系化했던 心性理氣哲學者이며, 朝鮮 中期學界와 思想界를 領導해 온 教育者였다. 그러므로 退溪가 神의 存在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었던가를 窺探해 볼은 매우 意味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上記 46首의 祝祭文을 中心으로 「神에 對한 退溪의 認識」이 어떠했던가를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할 수가 있다.

1. 一切有神觀

神은 一般人이 五感을 통해서 客觀的으로 그 實體를 確認할 수가 없는 假想의 存在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有神論」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無神論」을 전개해 오기도 했다. 神의 存在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見解는 결국 인간이 어떤 存在냐를 判가름하는 尺度로 귀결되어 人類生活에 至大한 影響을 끼쳐 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念頭에 간직하면서 退溪가 쓴 祝祭文을 對하면 退溪는 分明히 「有神論者」였다. 家廟에는 祖上들의 神이 있고, 書院에는 先賢들의 魂靈들이 계시고, 宗廟에는 先祖

들의 聖靈이 臨御하고 있으며, 天·地·日·月·星·辰·山·川·草·木·津·澤·風·雲·雷·雨……그 어디에도 다 神靈이 內在하는 것으로 認識했던 퇴계였다.

「維神降監, 豈不急矣。」〈風雨雷雨壇祈雨文〉

「有崇之嶽, 有濬之瀆, 作鎮作紀, 功在利物, 民之孔棘, 匪神曷叩。」

〈國內山川所兩文〉

「水生天一, 于坎之方, 爲雲爲雨, 澤物洋洋, 不愆厥時, 天道乃光, 神司厥職, 或飛或藏——」

〈比方黑龍祈雨文〉

「維神厚德, 持載萬物, 含生爲道, 發育爲職……」

〈雲祀后土氏祈雪文〉

「浩浩津流, 衆水之長, 自古靈應, 有祈如響, 予之否德, 微見于時, 恒雨不暘, 月再盈虧, 百川沸騰, 嘉禾漂沈, 哀我良農, 黜天焚心, 予雖當罰, 何辜黎元, 汎清陰沴, 屏戕蜿蜿, 南薰鼓物, 阜成民食, 於神報賽, 庶永無斁。」〈楊津溪所祈晴文〉

「季父滉謹具時羞之奠, 告汝將仕郎宓姪之靈……」〈祭姪將仕郎宓文〉

등의 例文을 통해서 우리는 退溪가 神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견지하고 있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退溪는 宋代의 周敦頤가 說破한 바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既生矣, 神發知矣。」⁸⁾

를 그대로 承認하므로서 宇宙生成의 本原인 太極 그 자체가 이미 萬物을 生生變化시킬 수 있는 무궁한 能力을 갖추고 있는 神的인 存在로 파악했으며, 그 本原에서 창조된 萬物에는 다 造物主의 攝理 즉 神이 이미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退溪는

8) 《退溪先生文集》卷之七, 〈進聖學十圖筭并圖〉中〈太極圖說〉

「朱子曰, 西銘, 程子以爲明理一而分殊, 蓋以乾爲父, 坤爲母, 有生之類, 無物不然, 所謂理一也, 而人物之生, 血脉之屬, 各親其親, 各子其子, 則其分安得而不殊哉.」⁹⁾

에서 볼 수 있는 바 「理一而分殊」의 原理를 그대로 尊信했기 때문에 그의 神에 대한 認識은 「唯一神의 多神論」의 입장에 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退溪는 朱熹를 사숙했던 분이었던 만큼 「理一分殊」에 대한 관념은 程子が 말한 바 「中散爲萬殊」式의 「理一分殊」가 아니라 「月印萬川」式의 「理一分殊」觀을 확립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月印萬川」式 「理一分殊」의 神觀을 定立한 사람은 萬物에 깃들어 있는 神을 個體神으로 보는 동시에 그 個體神의 位相과 意味를 唯一無二한 創造神과 同格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太極이 陰과 陽을 生成시키고, 陰과 陽이 水·火·金·木·土의 五行을 生産하고, 五行은 다시 萬物을 創造한 것이지만, 이 太極을 本原으로 한 萬物의 個體에는 太極의 中散된 破片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原太極 그 전체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微塵의 神이나 草木花卉·山川·雲霧·飛禽走獸·昆蟲·天地·日月·星辰의 神은 다 온전한 太極의 攝理를 갖춘 존재로 認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事一物을 對함에 있어서 언제나 戒愼恐懼하고 謙虛鄭重한 태도를 간직하게 되며 나아가서 物我 平等의 立場에서 自身을 省察涵養하고 萬物을 觀照하게 되는 것이다.

2. 崇信神力

退溪는 天地萬物에 神이 깃들어 있음을 認定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聖人與鬼神合其吉凶」〈太極圖說〉과 같이 그 神들은 全知全

9) 同上書, 〈西銘〉註.

能한 能力을 가지고 항상 인간의 禍福과 吉凶을 左右할 수 있는 存在로 想定했던 것이다.

「維茲之旱，災害孔棘，已無麥秋，靡播百穀，哀我黎民，舉將填壑，我躬瘡痍，邦本其厥，先祖有靈，監此危迫，庶羞垂佑，惠我天澤。」

〈宗廟祈雨祭〉

은 先主의 神位에게 旱災를 中止시켜 죽어 가는 백성을 구제해 주고 위태롭고 절박한 지경에 이른 나라를 보살피 주기를 기원하는 祝文이며

「節彼崇岳，鑑于地靈，能與雲雨，以福吾氓，孰陰莫陽，孰雨靡暘，幹旋其妙，玄造無疆，我民孔厄，年災荐告，昔罹旱乾，今告濡滂，上澍下瘡，禾盡漂腐，今其不及，後難摩撫，函掃氛霧，開廓乾坤，登我百穀，莫非麻思……」

〈竹嶺山祈晴文〉

은 竹嶺山神에게 장마를 그치게 하여 병들이 가는 백성을 살려 주고 썩어 가는 百穀을 풍년들게 해 달라는 祈願文이며

「凡祭祀，非疾病，未嘗不與，齋必盡其誠，祭必致其敬，奉饋奠物等事，多躬爲之。」

《言行錄》卷一，〈言行通述〉

「節祀時享雖祈寒盛暑，非疾病則必泔奉饋奠物，不令人代之，或得節物或異味，則或乾或濕，遇節祀享祭則薦之。」

(同上書卷三)

「先生行祭既畢，雖已撤席，又移時向神位而坐。」

(同上書三)

等은 退溪가 日常生活을 함께 있어서 祖先들의 神에 대해 얼마나 경건하고 신중했던가를 알려 주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退溪는 언제 어디서나 「十目所視，十手所指，其嚴乎。」《大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神의 照鑑과 保佑를 崇信하는 慎獨誠敬의 生活姿勢를 一貫했던 것이다.

3. 言神限界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退溪는 天地萬物에 다 神靈이 內在함을 崇信함과 아울러 그 神力을 빌어 人事의 艱難苦厄이나 國家의 危機를 救濟하려던 사람처럼 보이기 쉽다. 다시 말하면 理氣哲學의 集大成者인 退溪가 마치 무슨 巫誣信仰者였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다. 그렇지 아니한데 退溪神觀의 特色이 있다.

「巫誣祈禱之事, 一切嚴禁, 不入庭庭.」(《言行總錄》卷三)

「先生禁一家及奴婢輩淫祀.」(同上書)

와 같이 退溪는 巫誣的인 기도를 일체 엄금하여 집안 사람들이나 노비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戒予雋曰, ……聞巫女頗出入, 此事甚害家法, 自我慈氏以來, 全不崇信, 吾常禁絕, 不許出入, 非但欲遵古訓, 亦不敢毀家法, 汝今安可不知此意而經變乎? 聖人不云乎,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同上書)

를 보면 그 점은 더욱 明白하다. 巫誣神을 崇信하고자 한 아들 雋을 古訓違反者, 家法毀傷者로까지 엄중문책했던 퇴계였다.

하지만 上記 46首의 退溪 祝祭文을 읽어 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강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退溪 自身이 祝祭文에서 보여 준 여러 가지 人神・物神에 대한 崇信과 가족이나 奴婢들이 崇信한 巫誣神들과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둘째, 그것에 만일 차이가 없다면 退溪는 「己所不欲, 勿施於人」《大學》의 絜矩之道 즉 「내가 하고싶지 아니한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아니함」 혹은 「내가 하고싶은 일이면 남에게도 하게 해야 함」의 道理를 어긴 자가 당착의 모순을 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혹은 당혹감에 사로잡혀 답변을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필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금치 못한 바 있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退溪 自身이 이미 그 祝祭文 속에서 明白히 마련해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拙見을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退溪가 祝祭文에서 언급한 神들이나 巫誣神은 神의 存在原理라고 할 수 있는 「理一分殊」의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동일한 神이다.

둘째, 神은 다 같은 神이지만 그 神을 대하는 사람의 目的과 態度에 따라 그 神이 正神이 될 수도 있고 무격적인 邪神이 될 수도 있다.

셋째, 神을 對하는 사람의 目的과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私慾을 充足시키기 위함과 義理를 실현시키기 위함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꼭 같은 조상의 神이나 山・川・草・木・風・雲・雷・雨의 神이라도 個人의 疾病을 治癒한다든지 요행으로 官位를 얻거나 財物을 늘인다는지 하는 목적과 태도로 神을 대하면 그 神은 巫誣의인 차원의 邪神이 되며, 그와는 달리 祖先에 대한 子孫으로서의 義理를 실천하거나 國利民福 등 公益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과 태도로 대하면 正神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退溪는 한번도 個人的인 私利나 私慾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과 태도로 祝文이나 祭文을 쓴 적이 없다. 따라서 退溪가 자신이 쓴 祝祭文을 통해 보여 준 神들은 義理의 神, 公利의 神, 正神이 될 수 있으며, 巫誣崇信者들이 呪術文을 통해 보여 주는 神들은 非理와 私慾의 神, 邪神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退溪先生이 祝祭文을 통해 보여 준 神觀의 기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聖人들의 神이라도 그 神을 私利私欲充足의 魔法師와 같은 존재로 대하게 되면 그 神들은 巫誣의인 邪神의 지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며, 비록 山・川・草・木・飛禽・走獸

의 神이라도 그 神을 참으로 公利的인 義理實踐을 위한 대상으로 삼으면 의젓한 正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 퇴계가 아들 雋의 巫誣崇信行爲를 「務民之義」에 위배되는 일로 嚴責했던 내용을 통해 우리는 退溪의 崇神·言神의 限界를 더욱 명백히 알 수가 있다.

그야말로 「不語怪力亂神」《論語》의 敎訓에 위배되지 아니한 平凡하면서도 非凡한 退溪의 對神認識이다. 이러한 義理實現을 위한 對神認識이 人神을 感動시키고 物神을 命令할 수 있는 根本要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V. 結 言

以上 《退溪全書》所載 46首의 祝祭文에 대한 몇 가지 所感을 피력해 보았다. 그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退溪先生文集》所載 祝祭文은 祝文과 祭文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混裁되어 있다. 그것을 徐師曾이 《文體明辯》에서 밝힌 基準에 의해 구분해보면 전체 46首中 第1首에서 29首까지는 祝文에 해당하며, 第30首에서 46首까지는 祭文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46首의 祝祭文은 退溪에 의해 쓰여지긴 했지만 실제 그 名義는 각각 다르다. 祝文에는 퇴계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이 2首, 他人의 명의로 된 것이 19首, 그 名義가 不分明한 것이 10首이며: 祭文에는 退溪 自身の 명의로 된 것이 12首, 他人의 명의로 된 것이 1首, 명이가 불분명한 것이 4首다. 우리는 作者와 名義가 다른 이 祝祭文을 통해서 지난 날의 축제문 가운데는 借作과 代作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祝祭文이 朝鮮時代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생활요건이었던가를 추측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退溪는 朝鮮性理學을 集大成한 道學者로서 당시 사람들이 「神明」과 같이 推仰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祝祭文이 일반 민중에게 끼친 영향은 至大했을 것이다.

2. 退溪祝祭文이 文藝文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藝術的인 表現技巧의 要件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體裁의 創新性和 修辭의 效率性を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祝祭文을 지음에 있어서 이미 만들려져 있는 낡은 格式을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첫째는 문장의 長短에 있어서 그러하며, 다음은 文章의 構成에서 그러하다. 長短은 16字에서 1047字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만 祝祭文을 드리고자 하는 神靈이 어떤 신령이냐에 따라서 혹은 告由하거나 祈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했을 뿐이다.

文章을 구성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어떤 일정한 짜임새에 내용을 填寫하는 式의 構成을 하지 않았다. 다만 對象神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그 짜임새를 달리하고 있다. 때로는 「緒頭 → 本文 → 結尾」와 같은 典重한 구성으로 婉曲한 心緒를 펼쳐 내기도 하고, 때로는 緒頭나 結末部分을 생략하고 單刀直入의 本文을 확대강조함으로써 緊迫適切한 감정표출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修辭에 있어서는 「比」나 「興」의 方法을 지양하고 주로 「賦」法을 活用하여 寫實的으로 溫柔敦厚・高遠深厚的 心境을 直敍하고 있다. 그리고 朗讀에 있어서 律調效果를 더해 주고 文理를 通暢하게 해 줄 수 있는 四言駢體를 常用하고 있으나 哀痛極甚한 情感을 표현할 경우에 있어서는 言語의 美的技巧을弄하는 四言駢體를 삼가하고 古文體나 辭賦體를 구사하기도 했다. 이 점은 退溪의 文藝美的 感覺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3. 다음은 退溪의 祝祭文을 통해 본 退溪의 神에 대한 認識이다. 退溪의 祝祭文을 감상해 보면 퇴계는 분명히 祖上・先王・先賢・知人 등의 人神의 存在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山・川・津・后土・火・風・雲・雨・雷神 等 物神들의 存在와 그 全知全能的 能力을 崇信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대 퇴계는 天地萬物의 生成變化의 原理를 설명한 「理一分殊」說을肯

定했던 哲學者였던 만큼 그 神觀은 「唯一神의 多神論」의 입장에 섰던 분이
라 할 수 있다.

退溪는 神의 存在를 인정하고 神의 能力을 믿으면서도 邪神인 巫誣神은
嚴格히 배척했다. 退溪가 자신이 崇信한 正神과 巫誣的인 邪神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쓴 祝祭文을 상고해
볼 때 退溪는 언제 어디서든지 義理를 바로 잡고 公利를 실현하기 위해서
神을 인정하고 믿었을 뿐 요행한 私利私欲을 충족시키기 위해 神을 믿거나
神에게 무엇을 祈求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巫誣的인 차원에서의 神觀과
다른 점인 동시에 退溪言神의 特色이며 限界라 할 수 있다.